

무자년 동안거 12월 보름 법문

“부처님 말씀 바르게 실행해 깨달을지니”

법사: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주석, 부산 해운정사 주석)

일시: 2009년 1월 10일

장소: 대구 동화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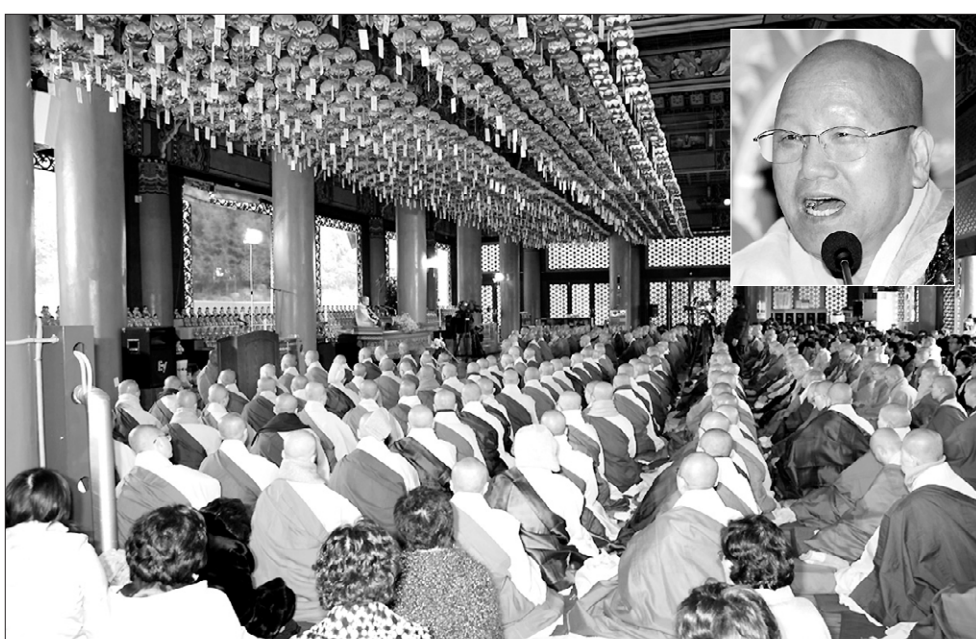
온 천지가 의심으로 가득 차면
혹연히 보고 듣는 찰나에 화두 깨치지요

동화사는 요즘 정진 열기로 뜨겁다. 스님들은 동안거 결제에 임한지 석달째에 접어들었고, 신도들은 120일간 약사여래 12대원의 원(願)을 좇아 하루에 1000배씩 12만 배 정진에 들어갔다. 이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억만년 다하도록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스승이 되는 간성법(見性法) 성취를 발원하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이미 절반 이상 지난 시점이지만 어느 한 사람 조금해하지 않는다. 누구든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화두를 지극한 마음으로 붙잡아, 간절한 의심만 지속 되면 천 사람 만 사람이 한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제 스님의 법문 덕분이다. 스님의 법문을 옮긴다.

게 실행에 옮겨서 바른 깨달음을 얻을지니, 이로써 사사시주(四事施主)의 은혜를 다 갚게 되요, 육도 윤회를 보려야 볼 수 없는 부처님의 열반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석일(佛日; 옛날에 무착(無著) 스님이 남방을 떠나 북방 오대산(五台山) 문수(文殊)보살님 친견의 원을 세우고 일보일배(一步一拜)하며 출발했습니다. 수년을 걸려 오대산 입구에 도착하여 어느 속소를 찾아가니, 한 노승(老僧)과 사자(侍者)가 무착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고?”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의 불법은 머물러 가지는 것이 어떠한가?”
“말세의 비구(比丘)가 계율을 조금 받들고 있습니다.”
“대중은 얼마만큼 모여 사는가?”
“혹, 삼백의 대중이나 오백의 대중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무착 스님이 이렇게 답하고 노승께 물었다.
“여기는 얼마나 머물고 있습니까?”
“법부와 성인이 함께 머물고 옹과 뱀이 혼잡(混雜)하니라.”
“대중은 얼마만큼 모여 살고 있습니까?”
이에 노승이 대답하기를,
“前三(전삼삼 후삼삼)이니라.”
하시고는 유리차잔을 들어서 무착 스님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남방에도 이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고?”
이에 무착 스님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잘 곳을 구하니, 노승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집착하니 여기에서 잘 수 없다.”
“저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는 수계한 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십하(二十夏)입니다.”
라고 하니, 이에 노승께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크게 좋은 것이니라” 하시고는 균제 동자(均提童子)에게 객을 내 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에 무착 스님이 가면서 동자에게 물기를,
“조금 전에 화상께서 前三(전삼삼 후삼삼)이라 하시니, 이 얼마나 되었고?”
하니 동자가 무착 스님을 불렀습니다.
“대덕(大德)아!”
이에 무착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에 동자가 물기를,
“얼마나 되었고?”
했습니다.
무착 스님이 다시 보니 화사(化寺; 문수보살이 신통으로 나타낸 절)에 편액(扁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자에게 물기를, “이 절 이름이 무엇이고?” 하니, 동자가 손으로 금강신(金剛神)의 등 뒤를



1월 10일 동화사 대웅전에서 열린 무자년 동안거 12월 보름(음력) 법회에서 법문하는 진제 스님과 청법 대중.

동화사, 스님은 동안거, 신도는 12만배 정진 열기 뜨거워
간절한 화두 의심 지속되면 진리의 문에 들 수 있어

가리키면서, “보고 보라!” 했는데, 무착 스님이 고개를 돌려 보니 절도 없고 사람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훗날 무착 스님이 오대산에서 수년을 기거하면서 전좌(典座) 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지일(冬至日)에 가마솥에 팔죽을 짓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팔죽 속에서 솟아오르니, 무착 스님이 팔죽 짓는 주걱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때리면서 말하기를,
“문수(文殊)는 스스로 문수요, 무착(無著)은 스스로 무착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방에서 북방 만 리를 지극정성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절하는 그 철저한 신심에 문수보살이 감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착 선사가 문수보살을 두 번 친견하여 불법안목(佛法眼目)을 갖추어 멋진 중노릇을 한 것 입니다. 그러니 금일 모든 대중도 무착 선사와 같이 이러한 신심을 내어 백천 불보살을 친견하고 만 가지 소원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석일(佛日)에 우두(牛頭) 선사가 사조 도신(四祖道信) 조사를 친견하기 전에 좌선삼매(坐禪三昧)에 들어 있으면 천중(天童) 천녀(天女)가 내려와서 공양을 지어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와 수북이 주위를 쌓아놓았습니다.
이에 우두 스님이 도신 선사를 친견하니, 선사께서

“모든 천상 사람과 모든 조수(鳥獸)들이 엿보는 그러한 공부를 어디에 쓰겠는가. 네가 그러한 사된 견해를 가지고 어찌 불법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시며 꾸짖으시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우두 스님에게 천중 천녀들이 공양을 올리거나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전(南泉) 선사는 124명의 도인제자를 배출한 위대한 마조 도인의 제자들 중 가장 날카롭고 바른 지혜를 갖춘 상수(上首)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인이 남전 선사께 우두 선사의 법문을 물어 물기를,
“우두 스님에게 천중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은 어떠합니까?”
하니, 남전 선사께서 “걸음걸음이 부처님 계단을 오름이니라” 하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다시 학인이 물기를,
“도신 선사를 친견한 후로, 천중 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한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 남전 선사께서 “설사 그렇게 공양을 올리지도 않고 꽃을 물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승의 한 실오라기 만큼의 도(道)에도 미치지 못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말 태고 보우(太古普愚) 스님이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끊어진 부처님의 심인법을 이어오기 위해 중국 원(元)나라로 들어가 1년여 동안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석옥 청공(石屋淸珙) 선사를 만나 법이 상통되어 법맥을 이어왔으니, 이로써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선법(禪法)이 유전(遺傳)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해탈법인 바른 참선법을 만나 정진에 입할 수 있음이라, 그래서 조사의 은혜는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선의 종조는 태고 보우 선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태고 보우 스님이 석옥 청공 선사를 찾아가 친견하니, 선사께서 태고 스님에게 우두 선사의 법문을 물어 물으셨습니다.
“우두 스님에게 천중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부귀는 만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태고 스님이 이렇게 답하니, 선사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신 선사를 친견한 후로, 천중 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빈한(貧寒)하면 자식도 떨어집니다.”
태고 스님이 이렇게 답하니, 다시 석옥 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두 허공이 태고(太古) 앞에 생겼는가 뒤에 생겼습니까?”
“태고로 좇아다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산승(山僧)의 스승 향곡(香谷) 선사께서 우두 선사의 법문을 물어 산승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두 스님에게 천중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백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삼삼(三三)은 구(九)입니다.”
“그러면 도신 선사를 친견한 후로, 천중 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육육(六六)은 삼십육(三十六)입니다.”

시회대중(時會大眾; 여기 모인 대중) 여러분, 남전 선사, 태고 선사, 산승이 세 분의 답 처를 잘 가릴 줄 아는 눈을 갖추어야 염라대왕에게 잡혀감을 면하고 천상·인간의 진리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필경(畢竟)에 진리의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掬水(국수)에 月在手(월재수)하고 弄花(농화)에 香滿衣(향만)이다.
물을 움켜쥐니 달은 손바닥에 있고, 꽃을 만지니 진신에 꽃향기가 가득함이다.

정리=박지현 기자 hdbp@hanmail.net

탈 종 공 고

법성(대원사)	본재(연화사)	대현(화남정사)	원광(심원사)	서연(백련사)
승선(마하정사)	송봉(관음사)	설운(관음사)	무공(성암사)	무성(성암사)
정도(웅혈사)	법신(법계사)	법천(법천선원)	광월(일광사)	혜명(혜명정사)
혜진(화남정사)	해공(약수사)	해공(약수사)	혜선(법화사)	백암(백룡사)

위 사찰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수요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 / 년 / 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